

# †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

금주 미사 독서: 한승호 임마누엘, 이유진 수산나

다음주 미사 독서:

금주 미사 복사: 윤지희 데레사

다음 주 미사 복사: 이주현 아드레아, 이지은 월프레드,  
손준규 요셉

금주 미사 해설: 최고은 소피아

다음 주 미사 해설: 우명희 카타리나

반 주: 조은영 베다, 황지혜 레지나

회 계: 한진 베드로, 황성필 요한

친교실 정리: 학부 구역

주 일 미 사

고 백 성 사

성 가 대 연 습

친교 / 간식 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합계 :

봉헌봉사: 권민호 바오로

다음주 봉헌봉사: 전은숙 글라라

\* 매월 마지막 주는 2 차헌금이 있습니다.

##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교리 모임

골프 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7 시 30 분 사제관 (10 월 5 일)

다음 기도모임 9 월 첫주 금요일(장소 계시관 참고)

미정

매주 일요일 오전 9 시 (장소: Tumbledown Trail)

##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 † 오늘의 묵상

미국의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의 중증 장애를 극복한 인간 승리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녀는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장애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모든 감각 중에서도 시각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훌륭한 문필가이기도 한 그녀는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아침 숲 속을 오랫동안 산책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별것 없어.’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랫동안 숲 속을 거닐면서도 눈에 띄는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헬렌 켈러는 단 사흘만이라도 앞을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을 셋으로 나누어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 준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오후에는 오래도록 숲을 산책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하렵니다. 저녁이 되어 찬란하고 아름다운 저녁노을까지 볼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요. 그날 밤 나는 하루 동안의 기억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서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 가진 것을 잃고 나서야 그것의 소중함을 알고, 병에 걸린 다음에야 건강의 중요함을 깨닫는 법입니다.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시각 장애인만큼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임 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거주사제 유성모 요셉

(608) 293-1114

사목회장 김태진 하상바오로

(608) 628-7977

## [연중 30 주일]

<제 1 독서> 예레미야서, 31, 7-9

<제 2 독서> 히브리서, 5, 1-6

### 화답송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 겹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알렐루야.

### 복 음 환호송

마르코복음, 10, 46-52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매오의 아들 바르티매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겹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 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주님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오늘의 성가] 시작: 19 봉헌: 49 성체: 167 파견: 271



매디슨한인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Madison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kccm

Facebook 그룹

매디슨한인천주교회

E-mail

kccmwi@gmail.com

2012 년 10 월 27 일



## 천주교, 10 월 11 일 ‘신앙의 해’ 개막

2012 년 10 월 11 일(목)은 세계 가톨릭교회가 함께 지내는 ‘신앙의 해’ 개막일이다. ‘신앙의 해’는 세계 교회가 2 천 년 그리스도교 신앙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구세주 예수님께 새롭게 돌아섬으로써 현대 세계의 사람들을 ‘믿음의 문’으로 인도하고 새롭게 복음화하고자 교황 베네딕토 16 세가 선포한 기간이다. 신앙의 해 개막일은 복자 요한 23 세 교황이 소집한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이하 ‘공의회’) 개막 50 주년, 복자 요한 바오로 2 세 교황이 『가톨릭교회 교리서』(이하 ‘교리서’)를 반포한 지 20 주년이 되는 날이다.

베네딕토 16 세는 2011 년 10 월 11 일에 발표한 신앙의 해 제정 자의교서 「믿음의 문」(Porta Fidei)에서, 신앙의 해가 오늘날 가톨릭교회의 핵심을 이루는 두 사건, 곧 공의회 개막과 교리서 반포를 기념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공의회는 오늘의 시대에 우리의 위치를 확인할 확실한 나침반(5 항)이며, 교리서는 일상생활의 중요한 주제들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전개되는 모습을 보여준다(11 항).”

### 교황 베네딕토 16 세의 ‘신앙의 해’ 교서 ‘믿음의 문’(Porta Fidei) 요약문

#### 하느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사회생활의 자명한 전제라고 여기면서도 흔히 자기 일의 결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요한 6,28)라는 군중의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요한 6,29)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결정적인 길입니다.

이에 비추어 저는 ‘신앙의 해’ 선포를 결정하였습니다. 신앙의 해는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 주년이자 『가톨릭 교회 교리서』 반포 20 주년이 되는 2012 년 10 월 11 일에 시작하여 2013 년 11 월 24 일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끝날 것입니다. ‘신앙의 해’는 온 교회가 특별한 성찰로 신앙을 다시 찾도록 이끄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교회교리서』의 중요성

공의회 교부들이 유산으로 남긴 문헌들은 그 가치나 광채가 전혀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공의회 문헌들은 올바르게 읽혀져야 하며, 교회의 전통 안에서

#### † 공지사항

1. 10 월 공동체 식사는 다음 주 미사 후에 있겠습니다.
2. 11 월 독서, 간식 및 청소 담당은 3 구역입니다.

교도권의 중요한 규범적 문헌들로 널리 알려지고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또한, 신앙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알고자 하는 이라면 누구나

『가톨릭교회교리서』에서 귀중하고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해에 『가톨릭교회교리서』에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신앙의 근본 내용을 재발견하고 연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쇄신과 새로운 복음화

교회의 쇄신은 신자들의 삶의 증언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 주신 진리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해는 온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주님을 향하여 참으로 새롭게 돌아서라는 초대입니다. 오늘날 믿는 기쁨과 신앙 전수의 열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복음화를 향한 교회의 더욱 힘찬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경축하며, 실천하고, 기도하는 신앙의 내용을 재발견하고, 신앙 행위를 성찰하는 것은 특히 이 신앙의 해에 모든 신자들이 짊어져야 할 책무입니다.

#### 사랑의 결실로 드러나는 신앙

신앙의 해는 또한 더욱 힘차게 사랑을 증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믿음 없는 사랑은 끊임없는 의심에 좌우되는 감정에 불과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특히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정신을 비추는 사람들의 신뢰할 수 있는 증언입니다. 이 신앙의 해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맺은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십니다, 믿으신 분!”(루카 1,45)이라고 우리가 외치는 하느님의 어머니께 이 은총의 때를 맡겨 드립니다.